



농협 부안군지부 등, 쌀 소비 촉진·판로확대 행사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와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20일 남부안농협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쌀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쌀 소비 감소와 농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지부와 남부안농협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부안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제주 조천농협에 공급하며,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도농상생의 실천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운동인 '농심전심운동'과 연계해 진행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쌀 판매를 넘어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죽향동, 신규 시책 '오! 해피데이' 운영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오! 해피데이'를 운영했다.

이 사업은 죽향동 발전협의회가 동민 중 올해 출생 신고한 가정에 출생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매달 동민들의 생일과 기념일을 전광판에 홍보하는 주민 참여형 시책이다.

현재까지 67정에 축하금을 전달하며 출생의 기쁨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으며, 전광판을 통해 동민 20여 명의 생일과 각종 기념일을 소개해 따뜻한 축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축하를 받은 동민은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가 올라와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새마을부녀회, 행복 고추장 나눔

남원시는 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운영욱)가 22일 사랑의 행복 고추장 나눔 행사를 펼쳐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전날부터 이를 동안 고추장을 정성껏 만들어 23개 읍면동의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700여 가구에 고추장 2kg씩을 직접 전달하고 인부를 살펴며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욱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고추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영면, '아영이네 반찬, 흥부가기가막혀' 순항중

남원시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 위원장 이영주)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밀반찬을 지원하는 "아영이네 반찬, 흥부가기가막혀"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혼자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생활지원사와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한 밀반찬을 전달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단순 식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방문 시 밀봉이 되어 정서적 위로를 덜어드리고 인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 실천하고 있어 대상자로부터 큰 만족도를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생명·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할 것”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10대 원장으로 재선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기관의 경영 안정과 농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은미 원장을 제10대 원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장 선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7대 비리 사전검증, 인·적성 검사, 평판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8월 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용계획을 수립, 8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25일간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진흥원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평판조치를 거쳐, 10월 16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은미 원장을 최종 선임했다.



이은미원장

이은미 원장의 새 임기는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8년 11월 17일까지 3년간이다. 현재는 임용 구비서류 접수와 심원조회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전북대학교 화학공학·생물공학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바이오산업 전문가로, 지난 3년간 바이오진흥원을 이끌며 전북 자치도의 농생명·바이오 산업 혁신 성장을 주도해왔다. 특히 그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사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자문에도 폭넓게 참여해 왔다.

그의 이러한 공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정받았다. 이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공자 표창(2018), 국무총리 표창(2020) 등 다수의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이은미 원장은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산업과 연구,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이은숙 세무사무소와 협약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22일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세무사 이은숙 사무소와 함께 어르신들의 세무 상담 지원과 세금 이해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세무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속·증여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세무 문제를 이해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 전문성과 복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민간 전문기관 간 협력 모델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2025년산 산물벼 자체수매 본격 추진

무주농협(조합장 객동열)은 2025년산 산물벼 수매를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연기된 일정으로, 잦은 강우로 인한 벼 수확 지연과 수분조절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무주농협의 수매 예상물량은 총 800톤(20,000포X 40kg)으로, 이 중 친환경 벼 150톤, 일반 벼 650톤이 포함되어 있다. 조합은 농가별 수확 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수매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분 관리와 검사 체계를 병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자 지원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와 장계농협(조합장 객동열)은 지난 21일 장수군 천천면에 거주하는 취약 돌봄대상자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농심전심운동의 일환으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어르신이 '농업인행복콜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어려움이 접수된 현장으로 달려간 NH농촌협동조합장은 실사를 거쳐, 농협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고통을 해결해드렸다. /장수=고관호기자

김제 심포편의점, 신풍동 착한가게 지역사랑 실천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22일, 지역 나눔 실천에 앞장선 '심포편의점 (대표 윤정호)을 착한가게 16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일 일정 금액을 정기 후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자발적 기부 프로그램으로, 참여 업소가 꾸준히 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윤정호 대표는 "편의점을 찾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일원이자 생각한다"며 "그만큼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최초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주신 윤정호 대표에 감사드립니다"며 "더 많은 상점들이 참여해 함께 나누는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완 신풍동장은 "오늘의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심포편의점의 따뜻한 마음이 신풍동 전역에 전해져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풍동에는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착한가게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하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제3회 무주군 칠연골 청소년문화축제 성료

제3회 칠연골청소년문화축제가 22일 무주군 안성면 안성중학교 강당에서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학부모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칠연골청소년문화축제는 안성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오늘을 응원하고 미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안성청소년문화의 집(관장 김만호),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 안성초등학교(교장 이금호), 안성중·고등학교(교장 최유경), 푸른꿈고등학교(교장 박정희), 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에서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안성 만나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치어리닝 공연', 안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댄스와 노래,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의 밴드공연 등이 이어지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바이애슬론 레이저총 체험, △함몰로인 쿠키 만들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디저탈 타투, △자비즈 꾸미기, △슬라임 만들기, △영화 쿼츠소, △도자기 만들기 등도 체험했다.



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생네컷 포토 부스'와 '간식 푸드 트럭'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무주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안성고 1학년)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무대를 함께 준비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좋았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미래포럼 운영 위한 위촉식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이 전북여성가족미래포럼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지역 여성가족 일자리성평등 4개 분야 전문가 32명을 위촉했다.



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여성안전 및 권익 확대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 △일자리 및 일생활균형 지원체계 수립 △성주류화 확산 등이다. 정정희 원장은 "전

북여성가족미래포럼 운영을 통해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며 "전북여성가족미래포럼 운영을 통해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업개발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정정희 원장을 비롯해 도내 학계, 여성계, 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포럼의 로드맵을 구축 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정은성 기자



농협 전북본부 등, 군산 목양원에 사랑의 장판 전달

농협 전북본부와 전북농협지역사회공헌단은 지난 21일 군산시에 위치한 구세군 군산목양원을 찾아 5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장판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바닥 장판을 새롭게 교체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환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철 단장 역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순창 논꽃복숭아 카카오페이커머스 판매

전북농협이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순창 논꽃복숭아를 22일부터 약 10일간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페이커머스를 통해 선보인다.

이번 판매는 전북농협과 카카오페이커머스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전북 지역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순창 논꽃복숭아는 이름처럼 첫눈이 내릴 시기 수확하는 늦가을 복숭아로, 순창 지역의 큰 일교차와 최적의 기후 조건 덕분에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식감이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이 품종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